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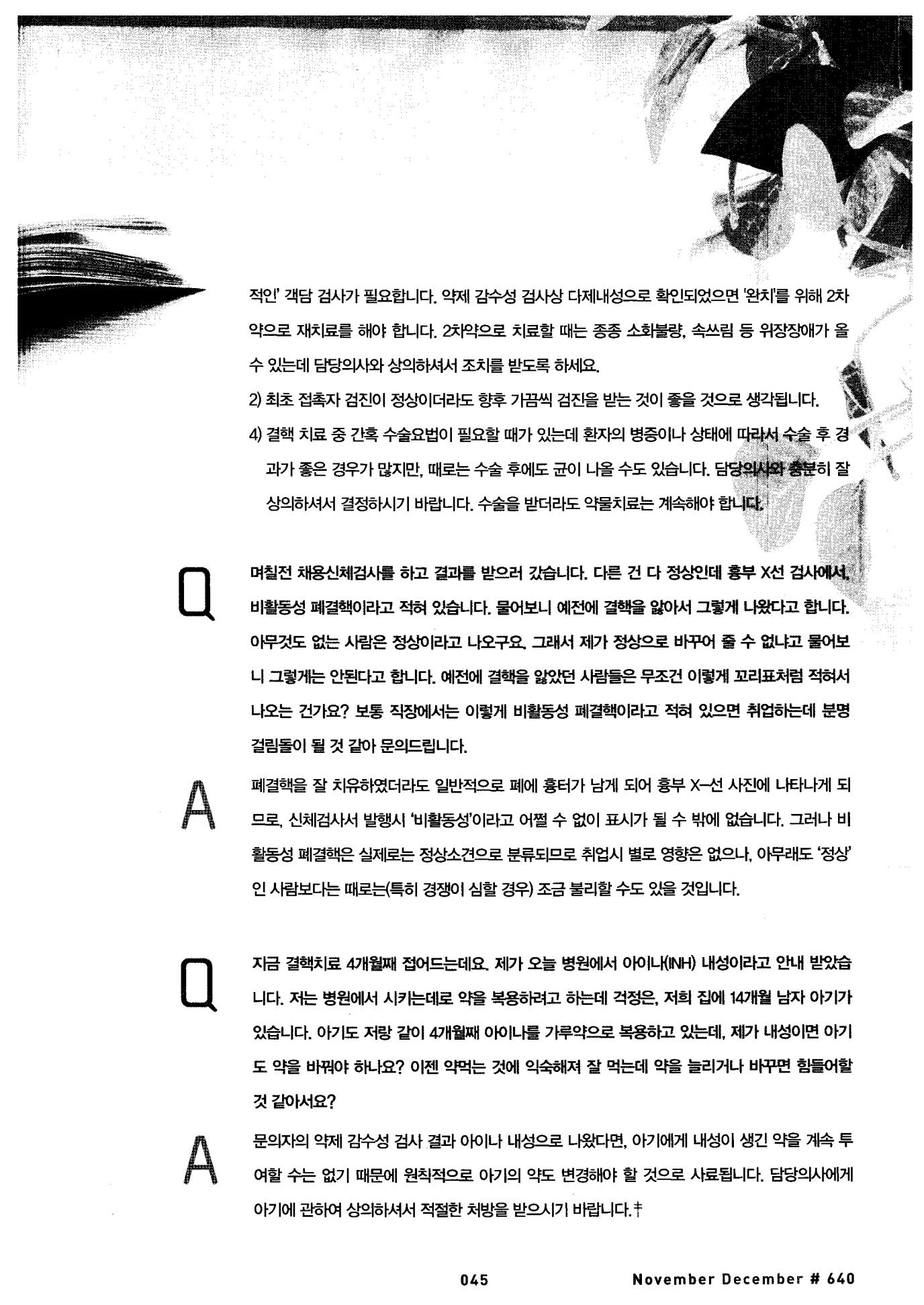
## 결핵상담실

상담. 김은배 중앙자력 복지자의원장

**Q** 다제내성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복용하고 있는 약이 내성이 아니라면 다제내성 결핵도 1차 약처럼 2주간 복용을 하면 전염성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 제가 내성 결핵인데도 가족들은 접촉자 검진을 어른은 한 번 아이들은 10주 단위로 두 번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내성결핵은 보통 2년을 치료한다는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 내성결핵일 경우 균이 없다가도 생길수가 있다고 하는데 주기가 있는 건가요? 보통 2년간 약을 복용한다고 하던데 언제쯤이면 균이 다시 안생기는 시기가 올까요?
- 지금 다니는 병원 선생님이 2차약 복용 후 한 두 달 후에 폐절제술을 권유하셨습니다. 폐절제술을 하는 것이 재발율도 낮추고 완치율도 높인다면서, 폐절제술을 받는다면 이후론 2년 간 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균이 안 생기는 건가요? 수술을 받는게 좋은 거예요?
- 제가 1차약을 복용하면서 기관지 결핵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지경을 하면서 나온 기래검사를 한 결과 폐에서도 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성이라해서 2차약으로 바꿨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 1차약은 부작용이 10일 정도 지나니 없어졌는데, 2차약은 소화가 계속 안됩니다. 약을 복용하는 내내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A** 1, 3, 5, 6) 다제내성 폐결핵의 전염성 소실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꼭 객담 결핵균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제내성 결핵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고 있으면 일정한 시기부터 더 이상 균이 나오지 않지만, 간혹 치료 도중에도 균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



적인' 객담 검사가 필요합니다. 약제 감수성 검사상 다제내성으로 확인되었으면 '완치'를 위해 2차 약으로 재치료를 해야 합니다. 2차약으로 치료할 때는 종종 소화불량, 속쓰림 등 위장장애가 올 수 있는데 담당의사와 상의하셔서 조치를 받도록 하세요.

- 2) 최초 접촉자 검진이 정상이더라도 향후 가끔씩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결핵 치료 중 간혹 수술요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환자의 병증이나 상태에 따라서 수술 후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수술 후에도 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담당의사와 충분히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약물치료는 계속해야 합니다.

Q

며칠전 채용신체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다른 건 다 정상인데 흉부 X선 검사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어보니 예전에 결핵을 앓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상이라고 나오구요. 그래서 제가 정상으로 바꾸어 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꼬리표처럼 적혀서 나오는 건가요? 보통 직장에서는 이렇게 비활동성 폐결핵이라고 적혀 있으면 취업하는데 분명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A

폐결핵을 잘 치유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폐에 흉터가 남게 되어 흉부 X-선 사진에 나타나게 되므로, 신체검사서 발행시 '비활동성'이라고 어쩔 수 없이 표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활동성 폐결핵은 실제로는 정상소견으로 분류되므로 취업시 별로 영향은 없으나, 아무래도 '정상'인 사람보다는 때로는(특히 경쟁이 심할 경우)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지금 결핵치료 4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아이나(INH) 내성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시키는데로 약을 복용하려고 하는데 걱정은, 저희 집에 14개월 남자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도 저랑 같이 4개월째 아이나를 가루약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제가 내성이면 아기도 약을 바꿔야 하나요? 이젠 약먹는 것에 익숙해져 잘 먹는데 약을 늘리거나 바꾸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A

문의자의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 아이나 내성으로 나왔다면, 아기에게 내성이 생긴 약을 계속 투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기의 약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의사에게 아기에 관하여 상의하셔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